

# 88년 메이저 경영실적

## 1. 머리말

메이저들은 '86년의 유가폭락의 충격으로부터 꾸준한 회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최근의 결산 보고에 나타났다. 대부분 메이저들의 '88년 수익은 '87년 보다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前해에 위축되었던 자본적 투자 및 개발투자 지출이 활발히 재개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확장에 대한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석유생산량은 대체로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석유 및 가스의 매장량은 7대 메이저중 4개사가 대폭 증가하였다. 석유제품 및 가스 판매량은 각각 약 4% 증가하였으며, 특히 석유화학부문의 성장률을 두드려졌다.

'87년도를 메이저들의 회복기라 한다면, '88년은 기업 확장 재개의 해로 평가될 만하다. 특히 低油價에 힘입어 정제, 판매, 석유화학 등 하류부문의 수익증가가 두드러졌다. 미국의 5개 메이저중 4개사의 '88년 순익은 평균 27% 증가하였으며, 펜스오일에 대한 거액의 배상금 지불로 '87년 대폭 적자를 기록하였던 텍사코도 지난해에는 흑자로 반전하여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株당 수익률도 '87년의 9%~15%에서 지난해에는 12%~17%로 증가하였으며, 이익배당도 증가하였다. 일부 메이저들의 고정자산의 순가치는 전반적으로 2% 증가하였으며, 예외적으로 텍사코가 6% 증가하였다. 석유제품 판매량은 2%~10% 증가하였으며, 천연가스도 비슷한 판매증가율을 보였다.

## 2. 아모코

지난 6월로 창립 100주년을 맞는 아모코는 '88년 美國의 5개 메이저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이고 눈부신 경영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판매량에 있어서는 110만b/d로 여전히 최하위에 머물러 있지만, 판매증가율이 10%를 상회하여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원유 및 콘덴세이트 보유 매장량이 8% 증가하여 28억배럴에 달하였으며, 천연가스 매장량도 27% 증가하여 19조5천억 입방피트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유매장량은 세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의 289%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모코의 이러한 외형 급신장은 캐나다의 Dome Petroleum 의 지분 42억 달러를 인수, Amoco Canada 와 합병하였으며, 美國내에서 Tenneco의 Rocky Mountain 구역을 9억달러에 매입한 데에 크게 기인한다. 아모코는 현재 북미 최대의 가스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의 주요 공급회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모코 그룹의 순자산 가치는 180억달러에서 230억 달러로 27% 증가하여 텍사코社를 앞질렸으며, 모빌과 세브론社의 규모에 균열하고 있다.

하류부문에서 정제량이 5% 증가하여 기동률이 91%에 달하였으며, 특히 고옥탄 휘발유의 판매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 아모코의 지난 해 수익은 무려 52%나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88년 메이저 경영실적

	稅前순이익	減價 및 減耗상각	영업수익	석유매장량	석유생산량**	원유처리량	제품판매량	천연가스 매장량	천연가스 판매량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달러)	(백만배럴)	(천B/D)	(천B/D)	(천B/D)	(십억 cft)	(백만cft / 日)
<b>美國系</b>									
Amoco									
1987	1,360	2,295	4,156	2,580	802	895	1,021	15,400	3,001
1988	2,063	2,318	4,312	2,798	809	944	1,120	19,487	3,155
증감(%)	+52	+1	+4	+8	+1	+5	+10	+27	+5
Chevron									
1987	1,250	2,514	3,920	3,348	1,338	1,878	2,235	9,444	2,402
1988	1,768	2,436	2,987	3,317	1,309	1,097	2,410	10,710	2,455
증감(%)	+41	-3	-24	-1	-2	+2	+3	+13	+2
Exxon									
1987	4,840	4,239	9,325	6,634	1,835	2,981	4,043	22,365	5,227
1988	5,260	4,790	10,554	6,551	1,919	3,042	4,306	22,797	5,192
증감(%)	+9	+13	+13	-1	+5	+2	+7	+2	-1
Mobil									
1987	1,348	2,457	3,013	2,953	709	1,563	2,362	20,487	4,052
1988	2,087	2,683	4,029	3,104	735	1,646	2,525	19,814	4,278
증감(%)	+55	+9	+34	+5	+4	+5	+7	-3	+6
Texaco									
1987	(-4,135)	2,552	2,641	3,089	1,056	1,892	2,734	7,847	2,767
1988	1,304	2,094	(-58)	2,992	990	1,877	2,787	7,238	3,315
증감(%)	...	-18	...	-3	-6	-1	+2	-8	+20
美國係 5개사 합계									
1987	4,663	14,057	23,055	18,604	5,740	9,209	12,495	75,543	17,449
1988	12,482	14,321	21,824	18,762	5,762	9,416	13,148	80,046	18,395
증감(%)	+168	+2	-5	+1	-	+2	+5	+6	+5
<b>유럽系</b>									
British Petroleum	(백만파운드)	(백만파운드)	(백만파운드)						
1987	1,391	2,216	5,317	5,005	1,425	1,822	2,622	8,575	727
1988	1,210	2,430	3,488	5,224	1,550	1,924	2,576	11,813	1,162
증감(%)	-13	+10	-34	+4	+9	+6	-2	+38	+60
Royal Dutch Shell									
1988	2,831	2,911	5,080	7,939	1,766	3,244	4,900	21,101	6,538
1988	2,941	2,858	6,243	8,396	1,763	3,379	5,030	20,980	5,993
증감(%)	+4	-2	+23	+6	-	+4	+3	-1	-8

註 : \*알려진 지분 매입비용 제외

\*\*순수한 보유매장량으로 부터의 생산량

### 3. 세브론

엑슨, 모빌에 이어 美國 3대 석유기업으로 꼽히는 세브론社는 社告를 통해 자산가치에 있어서 '87년은 불확실성의 해였으나, '88년은 인상 깊었던 해로 규정지었다. 세브론은 지난 해 정체 및 판매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원유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41%의 순익증가를 시현하였다. 세브론은 이러한 하류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정세시설의 현대화와 주유소의 모델 개량작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세브론社는 상류부문에 중점을 두어 테네코社의 Gulf of Mexico 자산을 25억 달러에 매입함으로써 원유생산량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게 된 이외에도 美國 최대 천연가스 생산회사로 부상하였다.

해외에서의 개발활동에 있어서도 北海, 나이지리아, 앙골라 및 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증가를 가져왔으며, 이탈리아, 터키, 콜롬비아, 콩고, 파푸아뉴기니 등 새로운 지역에서 개발에 차수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욕을 과시하였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3년 연속 기록적인 수익을 달성하여 다시 한번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세브론은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석탄채굴, 광물자원개발 및 캘리포니아에서의 부동산사업 등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오랜 기간동안 회장자리에 있던 George M Keller 前 회장이 지난 해 12월 물러나고 후임에 Kenneth T Derr 신임회장이 취임하였다.

### 4. 엑슨

발데즈港에서의 原油누출사고의 면구름이 짙게 드리워짐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의 투자지역으로부터 순익이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자산에 있어서 여전히 세계 최대규모의 위치를 지키고 있으나 제품판매량에 있어서는 셀에 선두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88년 순이익은 하류부문의 수익이 '87년에 비해 3배 증가하는 호조에 힘입어 原油가격 약세에 기인한 상류부문의 침체를 만회하여 전체적으로 9% 증가하였다. 석유화학부문의 수익은 70% 이상 증가하였으며, 석탄

및 광물자원부문도 銅 시장의 강세로 흑자로 반전되었고, 홍콩의 發電부문은 기록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原油생산량은 美國내 생산량이 '87년도 수준에서 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의 12% 생산증가와 북예멘에서 상당량의 시초생산 등 해외생산의 호조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5% 증가하였다.

유전개발에 있어서는 北海, 예멘, 알라스카 등지에서 유전발견에 성공함으로써 '81년 이후 최고의 실적을 거두었다. 엑슨그룹은 美國과 캐나다에서 9억달러를 투자하여 2억4천만배럴 규모의 石油 및 가스매장량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매장량은 약간 감소하였다. 지난 해 제품판매량은 6.5%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및 개발투자지출은 유전매입을 위한 지출을 제외하고 25% 증가한 66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5. 모빌

모빌도 모든 부문에서 상당한 수익증가를 거두어 '81년 이래 최고의 해로 평가하고 있다. 수익은 무려 55% 증가하였으며, 石油생산은 평균 7%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250만b/d를 생산하였다. 美國내에서의 시장점유율은 '84년의 5.6%에서 7%로 신장되었다.

모빌은 지난해에 주요 자산을 취득하고 또 매각하였다. 루이지애나의 현대식 정유시설과 멕시코만안의 생산시설, 그리고 텍사스의 에틸렌 생산시설을 매입하였다. 동시에 워싱턴州 정유공장을 BP / sohio에 1억5천 2백만달러에 매각하였으며, 총 7억달러 규모의 기타자산을 매각하였다. 또한 지난 70년대에 채택된 경영다각화 사업의 일환이었던 Montgomery Waad를 16억달러에 매각하고 다시 石油 및 석유화학부문에 전력투구하기로 한 점에 정책의 회귀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 6. 텍사코

텍사코에게 '88년은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해로 평가될 수 있다. 텍사코는 '87년에 펜즈오일에 대한 30억달러의 손해배상금 지불로 41억달러의 순손실을 기록,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88년에는 자산매각 등

을 포함하여 13억달러의 순익을 거두었다.

텍사코는 자산매각을 통하여 70억달러의 수익을 목표로 하였다. 텍사코는 텍사코 캐나다의 대주주 지분을 32억4천만달러에, 도이치텍사코를 12억2천만달러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매각하고 대금 중 18억달러를 현찰로 받기로 하였다. 또한 美 동부지역의 정제시설과 팬매사업의 지분 50%를 사우디아라비아 오일公社에 합작 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텍사코는 자산매각에 의한 수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주당 8달러씩 총 19억5천만달러를 특별 배당하였다. 분기별 정기배당은 '87년 2 / 4분기에 중단된 후 '88년 4월에 재개하였다. 장기부채는 지난 해 74억달러에서 60억달러로 감소하였으며, 자본적 및 개발투자지출이 26억달러로 17% 증가하여 경영이 회복되는 추세를 입증하였다.

반면 일부 생산시설의 판매 및 대여로 石油매장량과 생산량은 감소를 보였으나 석유제품과 천연가스 판매량은 국내외 모두 증가하였다.

## 7. B P

BP는 '87년에 스텠다드 오일의 소수지분을 매입하여 北美지역에서 사업을 확장시킨데 이어 '88년에도 Britoil의 인수를 끝냄으로써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하였다. 단독출자한 BP 아메리카의 스텠다드 오일 합병과 가스산업에 중요한 지분을 갖고 있는 Lear Petroleum의 매입등으로 BP는 고정자산의 40% 이상을 미국에 소유하게 되었다.

BP는 24억 파운드에 달하는 광물자산을 매각함으로써 石油 및 석유화학 이외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운전자본의 10% 이하로 낮추었다. 이밖에 5억 파운드 이상의 자산처분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Ninian 유전일부, 앤트워프의 정유시설 및 석유화학 시설, 그리고 Scicon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업부문이 포함된다.

BP는 사업재조정의 일환으로 英國, 노르웨이 및 아일랜드 지역의 상류부문을 총괄하는 사업본부를 Britoil의 Glasgow 사무소에 신설하였으며, BP Coal의 사업본부를 미국으로 이전하고, BP Nutrition을 앤트워프로 이전할 예정이다.

한편, BP는 英國정부의 요구대로 쿠웨이트의 소유주

식 790백만주를 재매입함으로서 쿠웨이트측 지분율을 21.6%에서 9.9%로 낮추어 장래 발생할지 모르는 경영권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하였다.

'87년도에 엑슨, 셀에 이어 세계 3대 석유기업으로 부상한 BP는 지난 해 자산규모가 22% 증가하였으며, 위표에 의하면 가장 홀륭한 경영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량은 9%, 정제량은 6% 각각 증가하였으며, 제품판매량은 2% 감소하였으나, 原油판매량은 9% 증가하였다. 천연가스 판매량은 英國과 美國에서의 지분 매입으로 60% 급증하였다.

## 8. 로얄더치셀

앵글로더치 그룹은 '88년 하류부문에서 60%의 수익증대를 거두었으나, 原油가격 하락에 따른 상류부문의 마이너스 수익으로 대부분 상쇄되었다. 또한 석유화학부문 순수익은 3배 증가하였으며, 석탄부문은 '87년의 적자로부터 흑자로 반전하였다. 그 외 금속 부문에서 현저한 수익증가가 있었다.

순익은 4% 증가한 29억 4천만 파운드(52억 3천만달러)로서 엑슨의 52억6천만달러에 이어 메이저 중 2위의 순익을 기록했다. 고장자산 규모는 286파운드(515억달러)로 미국의 선두기업인 엑슨의 541억달러를 바짝 뒤쫓고 있으며, 반면 자본적 및 개발투자 지출에 있어서는 52억 파운드(93억달러)로 엑슨의 66억달러를 크게 앞서고 있다.

'88년 石油매장량은 '87년에 비해 6% 증가하였으며,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정제량은 4% 증가하였으며, 제품판매량은 3% 증가하여 5백만b/d를 상회하였다.

위표에 의하면 셀은 세계적으로 제품판매에 있어서 경쟁회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으며, 美國의 휘발유시장에서는 선두회사의 위치에 있다. 천연가스 부문에서는 지난 해 유럽지역의 온난한 기후에 의하여 판매량이 감소하였지만, 아직까지 공산권을 제외하고 최대 생산회사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시추 생산 플랫폼을 멕시코만에 세운 것도 특기할만 하며, 올해에는 알라스카 Chukchi海의 Frontier 지역에서 여러회사 중 최초로 시추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 ♣